

IIRI Online Series

팬데믹 시대 세계적 젠더 격차

김 은 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국제대학원 교수

2022. 11. 29

팬데믹 시대 세계적 젠더 격차



김 은 미 |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국제대학원 교수

2019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경고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가 2016~2030년에 합의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구호 아래 17개의 목표와 경제·사회·친환경적 발전을 달성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UN 193개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보고서를 독립과학자들을 선정하여 집필하도록 하였다. 본 저자가 15명의 전 세계 과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어 이 작업에 참여하여, 2019년 9월에 UN 사무총장과 회원국에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여러 SDGs가 목표 달성에 제대로 이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음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중요 지표는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1) 기후변화 대응, (2) 생물 다양성, (3) 불평등, (4) 생태 발자국. 이 네 가지 문제는 여러 개의 SDGs 목표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를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2030년 SDGs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경고였다.

물론 보고서는 비관론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섯 개의 시스템에 기반한 복합적 접근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UN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각국의 중요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써 내려갔다.

팬데믹과 국제개발협력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오고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치명적이었다. 첫째,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전 세계 무역 둔화, 해외 투자 감소, 해외여행과 관광 급감, 해외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송금 급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포함한 국제기구, 국제구호단체 등의 활동 및 지원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둘째,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국내 불평등도 여러 지표에서 악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동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UN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are)’은 아예 국제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다.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의료 혜택 가운데 코로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백신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조차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말았고, 힘없이 이를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개발도상국가의 시민들과 선진국들의 여러 소외된 시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셋째, 이번 팬데믹은 과거의 팬데믹이 특정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 국한하여 나타났던 것과 달리 전 세계를 강타했고, 특히 선진국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팬데믹이 지구 한 곳에 발생하면 선진 공여국들이 발 빠르게 의료진을 급파하고 의료기와 의약품을 포함한 긴급 지원과 공적개발원조를 투입하고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팬데믹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ODA보다는 국내 자국민 보호가 정책 목표의 우선이 되었다. 적어도 팬데믹 발생 초기에는 그랬다.

팬데믹과 불평등

팬데믹과 함께 불평등의 여러 양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변혁이 시작되었는데, 엉뚱하게 팬데믹이 디지

텔 변혁을 가속화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 Co.)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의 소비자 관계가 2008년에는 20%였던 것이 2019년에는 38%, 2020년에는 58%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 사용이 더욱 중요하게 확산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에게는 인터넷 사용이, 그 비용이나 연결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디지털 격차가 더욱 악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불평등 문제는 젠더 불평등이다. 이 문제는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도 젠더 불평등이 여러 방면에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코로나19는 가사노동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켰다. 63%의 여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의 증가를, 59%의 남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의 증가를 보고했다. 60%의 여성이 무임금 돌봄 노동의 증가를, 남성은 54%를 경험했다고 한다. 또한, 유급 돌봄 노동의 경우 대부분 세계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70~80% 이상을 점유했다. (2) 여성 과학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연구 논문 투고의 감소로 인해 연구자/학자로서의 승진 등에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었다. (3) 빈곤에 있어 여성들이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전에 여성 빈곤자들의 숫자가 전 세계에 206백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232백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195백만 명에서 221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4)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 분야인 STEM 즉,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분야에서 젠더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고 또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STEM 관련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남녀의 비율은 79.3%대 20.7%로 그에 따라 임금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젠더 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젠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서, 여성 빈곤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여성 빈곤뿐만 아니라 아동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1~2015)와 SDGs를 통해 범 분야 이슈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던 젠더 불평등 문제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맞물리면서 미래의 젠더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조금 암울한 전망이다.

포스트 팬데믹시대 국제개발협력, 젠더 불평등의 과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첫째, 국제공조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체계 속에서 국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가장 주효한 방법임을 이번에도 확인하였다. 둘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포스트 팬데믹에 재개하고, 향후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장치를 국제사회에서 마련해야만 팬데믹의 조기 종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화된 불평등, 특히 젠더 불평등 문제가 코로나 시기의 단기적 불평등이 아니라 장기적 불평등으로 악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의 적극적인 시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끝/

저자 소개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Southern California)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10여년간 재직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개발협력학회장,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외교부, KOICA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UN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게이츠재단 연구과제로 "한국의 글로벌 보건협력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emkim@ewha.ac.kr)